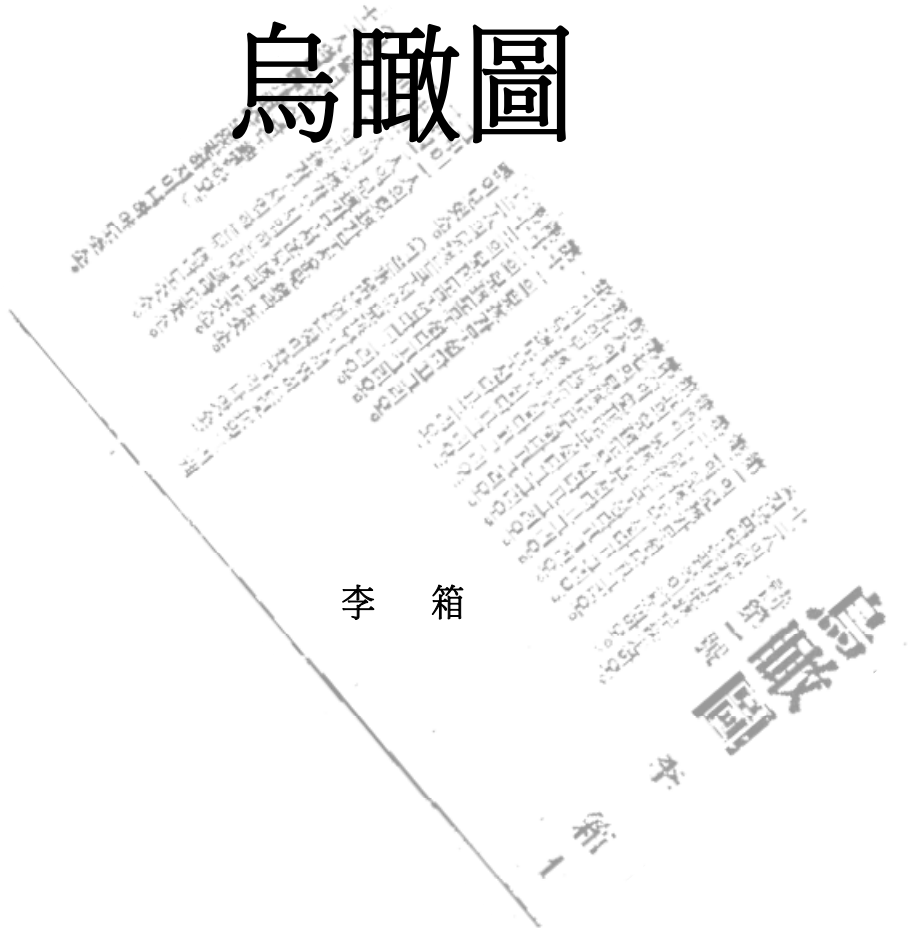


鳥瞰圖



李 箱

- 目次 -

詩第一號

詩第二號

詩第三號

詩第四號

詩第五號

詩第六號

詩第七號

詩第八號 解剖

詩第九號 銃口

詩第十號 나미

詩第十一號

詩第十二號

詩第十三號

詩第十四號

詩第十五號

詩第一號

1934年 7月 24日 朝鮮中央日報

十三人の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
(길은막다른골목길이適當하오.)

第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四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五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六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七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八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九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十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十三人の兒孩는무서운兒孩와무서워하는兒孩와그렇게뿐이모
혔소. (다른事情은업는것이차라리나앗소)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適當하오.)

十三人の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야도좃소.

詩第二號

1934年 7月 25日 朝鮮中央日報

나의아버지가나의겨테서조를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느냐나는웨나의아버지를깁총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웨드디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

詩第三號

1934年 7月 25日 朝鮮中央日報

싸흠하는사람은즉싸흠하지아니하던사람이고또싸흠하는사람
은싸흠하지아니하는사람이엇기도하니까싸흠하는사람이싸흠하
는구경을하고싶거든싸흠하지아니하던아니하던사람이싸흠하는
것을구경하든지싸흠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흠하는구경을하든지
싸흠하지아니하던사람이나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흠하지아
니하는것을구경하든지하였으면그만이다.

詩第四號

1934年 7月 25日 朝鮮中央日報

患者의 容態에 關한 問題

診斷 0.1
26.10.1931

1111111111111111 .
 2222222222222222 . 1
 3333333333333333 . 22
 4444444444444444 . 333
 5555555555555555 . 4444
 6666666666666666 . 55555
 7777777777777777 . 666666
 888 . 7777777777
 99 . 8888888888
 0 . 9999999999
 . 0000000000

以上 責任醫師 李 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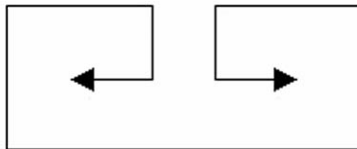
詩第五號

1934年 7月 28日 朝鮮中央日報

某後左右를除하는唯一의痕跡에잇서서

翼殷不逝 目不大覩

胖矮小形の神의眼前에我前落傷한故事를有함.



臟腑라는것은浸水된畜舎와區別될수잇슬는가.

詩第六號

1934年 7月 31日 朝鮮中央日報

鸚鵡 ※ 二匹

二匹

※ 鸚鵡는 哺乳類에 屬하느니라.

내가 二匹을 아아는 것은 내가 二匹을 아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물
론 나는 희망할 것이니라.

鸚鵡 二匹

『이小姐는 紳士李箱의 夫人이나』 『그러타』

나는 거기서 鸚鵡가 怒한 것을 보았느니라.

나는 붓그러워서 얼골이 붉어졌섯겠느니라.

鸚鵡 二匹

二匹

勿論 나는 追放당하였느니라. 追放당할 것까지도 없이 自退하얏
느니라. 나의 體軀는 中軸을 喪失하고 또 相當히 滄浪하여 그랫든지

大宰治文學館

나는微微하게涕泣하얏느니라.

『저기가저기지』 『나』 『나의-아-너와나』

『나』

sCANDAL이라는것은무엇이냐. 『너』 『너구나』

『너지』 『너다』 『아니다너로구나』 나는함뱍저저서그래서
獸類처럼逃亡하얏느니라.勿論그것을아아는사람은或은보는사
람은업섯지만그러나果然그럴는지그것조차그럴는지.

詩第七號

1934年 8月 1日 朝鮮中央日報

久遠謫居의 地의 一枝·一枝에 피는 顯化·特異한 四月의 花草·三十輪·三十輪에 前後되는 兩側의 明鏡·萌芽와 갓치 戲戲하는 地平을 向하야 금시금시 落魄하는 滿月·清澗의 氣가운데 滿身瘡痍의 滿月이 劊刑當하야 渾淪하는·謫居의 地를 貫流하는 一封家信·나는 僅僅히 遮戴하얏드라·몽몽한 月芽·靜謐을 蓋掩하는 大氣圈의 遙遠·巨大한 困憊가운데의 一年四月의 空洞·槃散顛倒하는 星座와 星座의 千裂된 死胡同을 跑逃하는 巨大한 風雪·降霾·血紅으로 染色된 岩鹽의 粉碎·나의 腦를 避雷針삼아 沈下 搬過되는 光彩淋리한 亡骸·나는 塔配하는 毒蛇와 갓치 地平에 植樹되어 다시는 起動할 수 업섯드라·天亮이 올때까지.

詩第八號 解剖

1934年 8月 2日 朝鮮中央日報

| | |
|-----------|----------|
| 第一部試驗 手術臺 | 一 |
| 水銀塗沫平面鏡 | 一 |
| 氣壓 | 二倍의 平均氣壓 |
| 溫度 | 皆無 |

爲先麻醉된正面으로부터立體와立體를위한立體가具備된全部를平面鏡에映像식힘. 平面鏡에水銀을現在와反對側面에塗沫移轉함. (光線侵入防止에注意하여)서서히麻醉를解毒함. 一軸鐵筆과一張白紙를支給함. (試驗擔任人은被試驗人과抱擁함을絶對忌避할것)順次手術室로부터被試驗人을解放함. 翌日. 平面鏡의縱軸을通過하여平面鏡을二片에切斷함. 水銀塗沫二回. ETC 아즉그滿足한結果를收得치못하였슴.

第二部試驗 直立한平面鏡 一

助手 數名

野外的眞實을選擇함. 爲先麻醉된上肢의尖端을鏡面에附着식힘. 平面鏡의水銀을剝落함. 平面鏡을後退시킴. (이때映像된上脂는반드시硝子를無事通過하겠다는것으로假設함)上脂의終端까지. 다음水銀塗沫. (在來面에)이瞬間公轉과自轉으로부터그眞空을降車식힘. 완전히二個의上脂를접수하기까지.翌日. 硝子를前進식힘. 連하여水銀柱를在來面에塗沫함(上脂의處分)(혹은滅形)其他. 水銀塗沫面의變更과前進後退의重複等. ETC以下未詳.

詩第九號 銃口

1934年 8月 3日 朝鮮中央日報

每日가치烈風이 불드니 드디여 내허리에 큼직한 손이 와 닿는다.
恍惚한 指紋 골작이로 내땀내 가스며 드자마자 쏘아라. 쏘으리로다.
나는 내消化器管에 묵직한 銃身을 느끼고 내다물은 입에 맥근 맥근한
銃口를 늦긴다. 그리드니 나는 銃쏘으드키 눈을 감으며 한방 銃彈대
신에 나는 참나의 입으로 무엇을 내배앗혔드냐.

詩第十號 나비

1934年 8月 3日 朝鮮中央日報

찌저진壁紙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그것은幽界에絡繹되는秘密한通話口다. 어느날거울가운데의鬚髯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날개축쳐어진나비는입김에어리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 通話口를손바닥으로꼭막으면서내가죽으면안젓다일어서듯키나비도날아가리라. 이런말이決코밖으로새어나가지는안케한다.

詩第十一號

1934年 8月 4日 朝鮮中央日報

그사기컵은내骸骨과흡사하다. 내가그컵을손으로꼭쥐였을때
내팔에서는난데없는팔하나가接木처럼도치더니그팔에달린손은
그사기컵을번쩍들어마룻바닥에메여부딪는다. 내팔은그사기컵
을死守하고잇스니散散이깨어진것은그럼그사기컵과흡사한내骸
骨이다. 가지낫든팔은배암과같이내팔로기어들기前에내팔이或
움즉엇든들洪水를막은白紙는찌저젓으리라. 그러나내팔은如前
히그사기컵을死守한다.

詩第十二號

1934年 8月 4日 朝鮮中央日報

때문은빨래조각이한뭉텅이空中으로날너떠러진다. 그것은흰비닭이의떼다. 이손바닥만한한조각하늘저편에戰爭이끝나고平和가왔다는宣傳이다. 한무덕이비닭이의떼가깃에무든때를씻는다. 이손바닥만한하늘이편에방맹이로흰비닭이의떼를따려죽이는不潔한戰爭이始作된다. 空氣에슛검정이가지저분하게무드면흰비닭이의떼는또한번이손바닥만한하늘저편으로날아간다.

詩第十三號

1934年 8月 7日 朝鮮中央日報

내팔이면도칼을든채로끊어져떨어졌다. 자세히보면무엇에몸
시威脅당하는것처럼셋팔았다. 이렇게하여일허버린내두개팔을
나는燭臺세음으로내방안에裝飾하여노았다. 팔은죽어서도오히
려나에게怯을내이는것만갓다. 나는이런얹다란禮儀를花草盆보
다도사랑스레 녀킨다.

詩第十四號

1934年 8月 7日 朝鮮中央日報

古城앞에 풀밭이 있고 풀밭위에 나는 帽子를 벗어노았다.

城위에서 나는 내 記憶에 꽤 묶어 온 돌을 때어 달아서 는 내 힘과 距離
 꺾 팔 때 질 찻 다. 捕物線을 逆行하는 歷史의 슬픈 울음 소리. 문득 城
 밑 내 帽子 꺾 해 한 사람 의 乞人 이 장 승 과 가 티 서 잇 는 것 을 나 려 다 보 았
 다. 乞人 은 城 밑 헤 서 오 히 려 내 위 에 잇 다. 或은 綜合 된 歷史 의 亡靈
 인 가. 空 中 을 향 하 야 노 힌 내 帽子 의 깊 히 는 切 迫 한 하 늘 을 부 른 다.
 별 안 간 乞人 은 慄 慄 한 風 彩 를 허 리 굽 혀 한 개 의 돌 을 내 帽子 속 에 치 트
 러 냐 는 다. 나 는 벌써 氣 絶 하 았 다. 心臟 이 頭 蓋 骨 속 으 로 움 겨 가 는
 地 圖 가 보 인 다. 싸 늘 한 손 이 내 니 마 에 닦 는 다. 내 니 마 에 는 싸 늘 한
 손 자 옥 이 烙印 되 어 언 제 까 지 지 어 지 지 안 았 다.

詩第十五號

1934年 8月 7日 朝鮮中央日報

1

나는거울업는室內에있다. 거울속의나는역시外出中이다. 나는
至今거울속의나를무서워하며떨고있다. 거울속의나는어디가
서나를어떻게하려는陰謀를하는中일까.

2

罪를품고식은寢床에서자다. 確實한내꿈에나는缺席하얏고義
足を담은軍用長靴가내꿈의白紙를더럽혀노았다.

3

나는거울속에잇는室內로몰래들어간다. 나를거울에서解放하
려고. 그러나거울속의나는沈鬱한얼굴로同時에꼭들어온다. 거
울속의나는내게未安한뜻을傳한다. 내가그때문에囹圄되어잇드
키그도나때문에囹圄되어떨고있다.

4

내가缺席한나의꿈. 내偽造가登場하지않는내거울. 無能이라도조흔나의孤獨의渴望者다. 나는드디여거울속의나에게自殺을勸誘하기로決心하였다. 나는그에게視野도업는들窓을가르치었다. 그들窓은自殺만을爲한들窓이다. 그러나내가自殺하지아니하면그가自殺할수없음을그는내게가르친다. 거울속의나는不死鳥에갓잡다.

5

내왼편가슴心臟의位置를防彈金屬으로掩蔽하고나는거울속의내왼편가슴을겨누어券銃을發射하였다. 彈丸은그의왼편가슴을貫通하였다스나그의心臟은바른편에있다.

6

模型心臟에서붉은잉크가엽즐러졌다. 내가遲刻한내꿈에서나는極形을바닷다. 내꿈을支配하는者是내가아니다. 握手할수조차업는두사람을封鎖한巨大한罪가있다.